

초등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이규영* · 강경석**

*고양시 문촌초등학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 목 차 〉

I. 서론	V. 고찰
II. 문헌고찰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와 함께 사회현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서구의 성 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대중매체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 향락산업의 번성 등은 윤리관의 이노미 현상을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성립하는데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워야 하는 절박한 일이 되면서 조기 성교육의 필요

성을 낳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 불안, 긴장, 초조, 당황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불확실한 성 지식 때문에 자아를 상실하고 성적 부적응을 가져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면서도 음성적으로는 상품화된 성이 범람하는 성의 이중 구조 체제를 갖고 있고, 아직까지 성에 대해 합의된 개념이나 인식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청소년들을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영양상태가 좋아져 신체발육이 크게 향상되었고, 개방화된 문화양식의 영향으로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가

교신저자: 이규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24번지 문촌초등학교

전화번호: 031-912-0147, E-mail: gueyoung69@hanmail.net

4-5년 빨라졌다(이영범, 1998). 청소년의 성적발달의 조속화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있는 성인의 오염된 성 환경은 청소년의 성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욕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고민하고 있으며 성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며,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이화연, 1991). 이렇게 청소년들의 성폭력의 증가는 컴퓨터 대중화에 따른 음란물의 접촉과 음란비디오의 시청이 용이해짐에 따라 성에 대한 간접경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에게서 직접적인 모방성의 성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성적육구의 해결대안 제공 및 오염된 성적환경에 대한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청소년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 문제를 줄이고, 정상발달을 돕고 건강한 성을 증진하는 접근과 더불어 일탈성문제의 예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 문제 상담이나 치료 등 다각적인 측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양순옥, 1999; 정금희, 1999; 송정부, 1992).

인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므로 성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양순옥·정금희, 1998).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정규 교과과정을 최초로 접하는 곳이므로 성교육을 가장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성교육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건강하면서도 친근한 방법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태도를 전달하여 내면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성교육은 1983년 교육부가 학교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지시한 이후 오늘날까지 성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으나, 이에 대응할 학교 성교육의 지도 지침 및 방향 정립이 미비하였고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 및 자료 등이 부족하여 충분한 성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교육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었다. 학교성교육은 지식위주로 치중되어 있고(곽양신, 1997),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는 교육계획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교육계획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송현정, 1999), 상황에 따라 특정시간에 실시하거나 관련교과시간에 조금 언급되는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2001년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를 발달단계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5단계로 나누어 CD와 책을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성교육을 학생별 10차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매우 발전되고 고무적이라고 본다. 즉 성숙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여 성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서 건강한 사회, 건전한 성문화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성에 대한 올바른 성 정보나 성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실제 알고 있는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효과적인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1학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고학년 성교육 교사용지침서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의 내용에 있는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II. 문헌고찰

1.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초등학교 5, 6학년은 신체가 급성장하기 시작하고, 생리현상(여학생은 초경이, 남학생은 몽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사춘기를 맞이한 남녀어린이들은 신체변화와 함께 성문제로 관심이 쏠리며, 특히 신체에 대한 호기심, 이성 친구 등 많은 고민을 갖는 시기로 올바른 성 지식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Hurlock(1955)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성 지식은 대부분 학교, 부모, 대중매체, 자기경험, 친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적절하고 성에대한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는 장래 건전한 성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나, 이들의 성적 호기심이 묵살되거나 억제 당하면 왜곡된 성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성교육은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성 지식을 얻는 곳이므로 성교육은 성 지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애경(1994)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성 지식 출처를 알아본 결과, 학교교육이 39.2%, 부모님 26.0%, 친구 14.4%, 영화나 텔레비전 3.9%, 잡지 4.0%로 다수의 5, 6 학년 초등학생은 학교 성교육에 의하여 성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태도 역시 올바른 성교육 지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인격 속에 건전하고도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 및 자각을 길러주어 바람직한 성행동을 유도하여 사회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김미주, 1997).

성교육은 어린이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성숙해 가는 사춘기 때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안창선, 1996). 초등학교 5, 6학년의 성 지식 및 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김애경, 1994)에 의하면, 5, 6학년 학생의 과반수가 성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남아 아동보다는 여자가동이 더 정확하게 알고있다고 하였으며, 성교육이 여아중심으로 이루어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시기로 또래 친구들과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든지, 도색잡지를 돌려가며 읽음으로서 성에 대한 불건전한 가치관을 갖게되고 이러한 왜곡된 성 가치관이나 성 지식은 청소년 성범죄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성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성 지식을 전달하고 왜곡된 성 개념을 심어주지 않는 정기적이고 아동 수준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

대 사회의 산물인 TV, 비디오, 영화,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처 올바른 성 지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자극적이고 개방적인 성 정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진영옥, 1982). 이러한 자극적 성문화와 성 정보는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흥미와 호기심을 부추김으로서 성적비행과 탈선 등의 성범죄를 야기 시키며(심영희, 1990),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신체발달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어(박순선, 1993) 사춘기의 시작연령도 종래의 13-14세 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10-11세로 낮아졌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월경이나 유방발육, 몽정이나 변성 등 2차 성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강희경, 1992). 더구나 신체변화가 나타나는 사춘기시기인 5, 6학년 시기는 많은 성적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김송자, 1987).

2. 학교 성교육

청소년들이 성 지식을 얻는 곳은 학교 및 가정, 친구, 대중매체 등 여러 경로가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고, 성 지식을 얻는 곳이므로 학교성교육은 성 지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나라 성교육은 8.15해방과 6.25전란 이후 현대적 성교육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의 성교육은 성적타락의 방지에 역

점을 두어 정결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교육은 부모가 맡아서 해야하며 학교에서는 순결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 지식은 가르치되, 노골적인 성 생리지식이나 집단교수는 절대로 금지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학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성에대하여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성에대한 질문이나 문제행동에 부딪힐 때만 조기 발견하여 철저한 개별 지도를 하게끔 하였다(김성애, 1999).

1960년대에는 인구급증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해져 여성생리현상과 기초지식 등이 언급되면서 성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순결교육차원에서 실시되었다(계수연, 1999; 구자옥, 1991).

1970년도에도 성교육이란 용어대신 순결교육이란 용어로 강조되었고, 1978년도에는 『순결교육자료』가 서울시 장학자료2호에 발간되는 등 여성의 순결교육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1980년대 들어와서 교육부도 성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보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하였다. 또한 과거의 순결만을 강조하던 성교육이 아닌 인간의 성장발달에 따르는 성 현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다루었는데, 그것이 1983년에 서울시 교육연구원서 교사용 『성교육자료』를 만들어 중등학교에 배분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순결만을 강조하던 성교육이 아닌 인간의 성장발달에 따르는 성 현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취급한 첫 번째 자료였다. 성교육의 영역으로 신체발달영역, 심리발달영역, 인간관계영역, 성 윤리 영역, 가정생활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령에 맞도록 내용을 조절하였다(김성애, 1999).

1988년 문교부에서도 『성교육지도자료』(중·고등학교 교사용)를 발간하여 일선학교에 공급

하였다.

1993년에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에 각급 학교별도 해당교과에 성교육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용도 빈약하고, 청소년의 성숙상태와 맞지 않는 일면이 있고, 또한 교사는 교과진도에 쫓겨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으며,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여(김정옥, 1988; 구자옥, 1991) 학교성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심리 연구 부에 의뢰하여 국, 중, 고등학교 성교육개발연구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성교육자료』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199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성과행복』중학교용을 발간하였으며, 1998년에는 『성과행복』고등학교용을 발간하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등 교과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김성애, 1999).

그러나 역시 학교 성교육은 일반교육과정에 치여 정착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성교육이나 지식 측면에 치중되어 있거나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과 관련하여 교육 인적 자원부는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2000년 학교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교육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성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였으며 교육방송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기획할 것을 기획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4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 책자를 발달단계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

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5단계로 나누어 CD와 교사용 성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 성교육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성교육을 학생별 연간 10차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직원들의 성희롱·남녀차별에 교육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과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직장 내, 학생간, 동료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교내에 성희롱 등 남녀차별 관련 고충처리기구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성교육도 역시 정규교과과정에 편입되지 못한 채 학교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시간(재량활동, 특별활동, 관련교과시간, 학급활동시간) 등에 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성교육이란 학교 정규시간 편성자체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성교육을 부담스러워 하는 교사들이 많아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교육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각 학교는 재량활동 시간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충분한 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도 해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 성교육내용에 대한 계속성이나 연계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되는 학교성교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지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하고 체계적인 성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의 일회성 혹은 산발적인 성교육결과에 비해 매우 발전되고 고무적이라고 본다. 즉 성숙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여 성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서 건강한 사회, 건전한 성문화를 창

출해 내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생 5, 6학년의 성지식·성태도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진 조사연구로서 조사 대상 학교 전체 비율은 <표 1>과 같다.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 1,950명으로 2002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1,950명을 임의 표출하여 해당학교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에 들어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수거하였다. 회수율은 100%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자 46부를 제외하여 1,904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표 1> 표집 학교 및 학생 수

구분	N	빈도(%)
가 초등학교	652	33.4
나 초등학교	579	29.6
다 초등학교	719	37.0
계	1,950	100%

<표 2> 설문지 성 관련 영역 문항 수

구분	대영역	소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계
성지식	신체발달	신체발달	13	1-13	13
		성건강·성심리	10	14-23	
	성심리	3	24-26	13	
성태도	인간 관계	결혼과 가정	5	27-31	13
		이성과 사랑	5	32-36	
		자기결정과 선택	3	37-39	
	성문화·성윤리	사회적환경	10	40-49	13
		양성평등	3	50-52	

2. 연구도구

성 지식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2001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된 성교육 책자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 교사용 지침서에 나와있는 5, 6학년 성 관련 영역 학습목표를 기초로 간호학교수 2명과 보건교사 2명에게 자문하여 수정·보완 후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문항과 성지식·성태도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일 경우 1점, 『아니다』, 『모르겠다』일 경우 오답으로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도치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각각의 영역별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3점이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2점이다.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165로 높은 편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성 지식·성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지식·성태도는 *t*-test, one way ANOVA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성지식 및 성태도 영역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이 966명(50.8%), 여자가 935명(49.2%)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5학년은 1,014명(53.3%), 6학년은 890(46.7%)명이었다. 동거가족 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1,866명(98.2%)이었으며,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응답한 학생은 1,877명(98.7%)이었다. 형제순위를 보면 첫째이면서 혼자인 아동이 977명(51.7%), 둘째는 851명(44.3%), 셋째인 경우는 76명(4.0%) 이었다. 부모직업을 보면, 회사원인

경우가 1192명(61.2%), 공무원인 경우가 352명(19.1%)로 가장 많고 상업 318명(17.3%) 무직이 1명(0.1%), 기타41명(2.3%)순 이었다. 부모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693(37.2%), 아닌 경우가 1,211명(62.8%)으로 더 많았다.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남녀 모두 합하여 모두 421명(22.3%)이었으며,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468명(77.7%)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성지식 · 성태도 점수

1) 신체발달영역

초등학생 5, 6학년들에게 『함께 풀어 가는 성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04)

특성	항목	빈도(%)	특성	항목	빈도(%)
성별	남학생	966(50.8)	부모의 맞벌이	예	693(37.2)
	여학생	935(49.2)		아니오	1,211(62.8)
학년	5학년	1,014(53.3)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받은 경험	예	421(22.3)
	6학년	890(46.7)		아니오	1,483(77.7)
동거가족*	아버지	1,866(98.2)	아버지의 직업	회사원	1,192(61.2)
	어머니	1,877(98.7)		공무원	352(19.1)
	오빠, 형, 누나	905(47.6)		상업	318(17.3)
	할아버지	89(4.7)		무직	1(0.1)
	할머니	243(12.8)		기타	41(2.3)
	동생	913(49.1)	어머니의 직업	회사원	317(17.0)
	기타	72(3.8)		공무원	163(8.7)
형제순위	첫째(외동)	977(51.8)	여학생 월경경험	상업	183(9.8)
	둘째	851(44.3)		주부	1,186(61.5)
	셋째	76(4.0)	기타	55(3.0)	
			남학생 몽정경험	유	107(11.5)
				무	828(88.5)
				유	30(3.2)
				무	936(96.8)

<*는 중복응답임>

이야기』에 나와있는 성 영역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신체발달영역의 성 지식 점수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다.

신체 발달 성 지식 점수 결과를 보면, 『사춘기에는 몸의 변화가 생긴다』(M=.90)가 가장 높고, 『아기는 자궁에서 자람』(M=.80) 『남자·여자답게 변화하는 것은 성호르몬 때문임』(M=.79) 순서로 나타났으며, 『내 모습이 부모님과 닮은 것은 유전자 때문임』(M=.75), 『초경 시작은 사람에게 따라 다름』(M=.65), 『수정은 임신시 꼭 필요함』(M=.57) 은 평균점수 0.5점보다 높았으나, 『정자의 성염색체는 XY임』(M=.33), 『난자의 성염색체는 XX임』(M=.34), 『난소는 난자를 만듦』(M=.38), 『질은 정자가 들어가는 입구이고 아기가 태어나는 길임』(M=.39), 『몽정은 잠자는 동안 나옴』(M=.42),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짐』(M=.48)은 성 지식 평균점수 0.5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신체발달은 잘 알고 있었으나,

임신·출산·생리에 관련된 성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건강·성심리 영역 성 지식·성태도 점수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 나와있는 성 영역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성 건강·성 심리 영역의 성 지식·성 태도 점수를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다.

성 건강·성 심리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순위를 보면, 『고민시 부모나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음』(M=.76)이 가장 높고, 『유방은 젖을 먹이는 소중한 기관임』(M=.75),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임』(M=.71),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은 자연스러운 것임』(M=.64), 『사춘기에 이성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임』(M=.60), 『생식기 불결 시 질병에 걸릴 수 있음』(M=.53), 『월경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표시임』(M=.51) 순으로 나

<표 4> 대상자의신체발달영역 성지식·성태도 점수

신체발달영역 변인	(n=1,904명)	
	평균	SD
수정은 임신시 꼭 필요함	.57	.50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짐	.48	.50
아기는 자궁에서 자람	.80	.40
사춘기에는 몸의 변화가 생김	.90	.30
내모습이 부모님과 닮은 것은 유전인자 때문임	.75	.43
난자의 성염색체는 XX임	.34	.47
정자의 성염색체는 XY임	.33	.47
질은 정자가 들어가는 입구이고 아기가 태어나는 길임	.39	.49
남자, 여자답게 변화하는 것은 성호르몬 때문임	.79	.41
몽정은 자연스러운 것임	.53	.50
몽정은 잠자는 동안 나옴	.42	.49
난소는 난자를 만듦	.38	.49
초경 시작은 사람에게 따라 다름	.65	.48

<표 5> 대상자의 성건강·성심리 영역 성지식·성태도 점수

(n=1,904명)		
성건강·성윤리 영역 변인	평균	SD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은 자연스러운 것임	.64	.48
생식기 불결시 질병에 걸릴 수 있음	.53	.50
월경 중 가벼운 운동은 해도 됨	.31	.46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임	.71	.45
몽정후 생식기를 씻어야 함	.38	.49
유방은 젖을 먹이는 소중한 기관임	.75	.43
월경 중 샤워는 해도 됨	.23	.42
에이즈 환자와 악수하면 에이즈에 걸림*	.83	.38
월경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표시임	.51	.50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임	.40	.49
사춘기에 이성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임	.60	.49
고민시 부모나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음	.76	.43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우나 자주하면 건강을 해칠수도 있음	.22	.42

* 도치문항임

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별로 보면,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우나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M=.22)이었고, 『월경 중 샤워는 해도 됨』(M=.23), 『월경 중 가벼운 운동은 해도 됨』(M=.31), 『몽정후 생식기를 씻어야 함』(M=.38),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임』(M=.40) 순으로 나타났다. 도치문항인 『에이즈 환자와 악수하면 에이즈에 걸림』(M=.83)은 평균점수 0.5 점 보다 상당히 높아서 대다수 어린이들이 악수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간관계 영역 성지식·성태도 점수

초등학생 5, 6학년들에게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 나와있는 성 영역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영역의 성 지식 점수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다.

인간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성 지식·성태도에 관한 순위를 보면 <표 6>과 같다.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M=.94), 『가족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함』(M=.93), 『몸가짐과 옷차림을 단정히 함』(M=.93), 『친구와의 우정은 중요함』(M=.85), 『이성친구의 몸의 변화에 대해 놀리면 안됨』(M=.83), 『행복한 부부는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함』(M=.81),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임』(M=.71),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책임임』(M=.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점수를 보면,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움』(M=.56), 『자기표현이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임』(M=.58), 『어른들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함』(M=.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치문항으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있음』(M=.76)은 높게 나타나,

<표 6> 대상자의 인간관계 영역 성 지식·성 태도 점수

(n=1,904명)

인간관계 영역 변인	평균	SD
행복한 부부는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함	.81	.40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책임임	.69	.46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있음*	.76	.43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	.94	.24
가족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함	.93	.25
친구와의 우정은 중요함	.85	.36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움	.56	.50
이성친구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함	.78	.42
몸가짐과 옷차림을 단정히 함	.93	.26
이성친구의 몸의 변화에 대해 놀리면 안됨	.83	.38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함	.66	.47
어른들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함	.59	.49
자기표현이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임	.58	.49

* 도치문항임

아직도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영역 성 지식·성 태도 점수는 모든 문항 점수가 모두 평균점수 0.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성문화·성윤리 영역 성지식·성태도 점수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 나와있는 성 영역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성 문화·성 윤리 영역의 성 지식·성 태도 점수를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다.

성 문화·성윤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는 『혼자일 때 낯선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음』(M=.93), 『누가 몸을 만지려 할 때 “싫어요” 함』(M=.91),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임』(M=.88), 『성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해야 함』(M=.84), 『음란사이트 연결시 보지 않

고 바로 나옴』(M=.77), 『성폭력 피해시 전문가 치료가 필요함』(M=.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잃게 함』(M=.51)이 가장 낮았다.

도치문항인 점수 즉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 지식 점수를 보면, 『광고의 성 표현은 사실임』(M=.90)이 가장 높고, 『성 호기심은 친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M=.72), 『아는 사람에게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음』(M=.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문화인 점수를 순위 별로 보면, 『전교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음』(M=.89),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됨』(M=.84),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좋음』(M=.83)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성차별 의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대상자의 성문화·성윤리 영역 성지식·성태도 점수

(n=1,904명)		
성문화·성윤리 영역 변인	평균	SD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임	.88	.33
성폭력 피해시 전문가 치료가 필요함	.65	.48
누가 몸을 만지려 할 때 “싫어요” 함	.91	.29
광고의 성표현은 사실임*	.90	.30
음란 사이트 연결시 보지 않고 바로 나옴	.77	.42
혼자일 때 낯선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음	.93	.26
아는 사람에게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음*	.54	.50
성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해야 함	.84	.36
성호기심은 친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72	.45
성의 잘못된 생각은 남녀가 존중하는 태도를 잃게 함	.51	.50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일을 하는 것이 옳음*	.83	.38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됨*	.84	.37
전교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음*	.89	.31

* 도치문항임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성태도 총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총점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은 남학생이 평균점수 32.19 점, 여학생이 36.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 = -9.644, p < .05$), 학년에 따른 성 지식·성 태도 총 점수도 5학년이 평균 33.78점, 6학년이 34.73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 = -2.194, p < .05$). 형제순위별로 보면, 첫째이거나 혼자인 경우가 둘째나 셋째보다 성 지식 총점($F = 10.892, p < .05$)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직업 중에서는 회사원인 경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학생들의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256, p < .05$). 부모로부터 성교육 받은 경험 유무간 성 지식 총점은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 지식 총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 = 11.063, p < .05$). 여학생 월경경험 유무간에 성 지식 총점의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몽정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간에 성 지식 총점은 몽정을 경험한 학생이 성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590, p < .05$).

4. 성지식·성태도 영역별 평균점수

대상자들의 성 지식·성 태도와 관련된 4개 영역, 즉 신체발달영역, 인간관계영역, 성건강·성심리 영역, 성문화·성 윤리 영역을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영역을 최대 13점에서 최저 0점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인간관계영역(9.32 ± 2.6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성 태도 총점

(n=1,904명)

일반적 특성		성지식 총점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학생	32.19±8.72	-9.644*
	여학생	36.25±7.08	
학년	5학년	33.78±8.19	-2.194*
	6학년	34.73±8.16	
동거가족	아버지	34.29±8.17	
	어머니	34.21±8.20	
	오빠, 형, 누나	33.44±8.39	
	할아버지	34.70±8.87	
	할머니	33.93±8.12	
	동생	34.89±7.81	
	기타	34.60±6.98	
형제순위	첫째(외동)	34.97±7.98	10.892*
	둘째	33.74±8.27	
	셋째	30.41±8.82	
아버지의 직업	회사원	34.43±7.87	3.256*
	공무원	33.30±9.06	
	상업	34.67±7.65	
	무직	48.00± .00	
	기타	37.44±7.51	
어머니의 직업	회사원	33.54±7.91	1.083
	공무원	35.29±8.74	
	상업	33.92±8.07	
	주부	34.38±8.04	
	기타	34.76±9.47	
부모의 맞벌이 여부	예	34.20±8.26	-.422
	아니오	34.38±7.99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	유	38.15±6.91	11.063*
	무	33.09±8.20	
여학생 월경경험	유	37.53±6.98	1.849
	무	36.05±7.06	
남학생 몽정경험	유	37.65±7.37	3.590*
	무	32.00±8.72	

* p<.05

이 신체발달영역(7.23±3.04), 그리고 성문화·성 윤리 영역(6.72±2.01), 성 건강·성 심리 (6.16±3.17)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을 13 점 만점으로 하여 더한 점수는 52점 만점에 평균 34.25점이었다.

V. 고찰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1980년대나 2000년대나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부모로부터 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본 연구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2.3%,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7.7%로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다. 이는 YMCA(1985)의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학생이 15.8%, 김애경(1994)의 연구에서 26.0%로 본 연구와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부모들이 들어내놓고 자녀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거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의 사용이 급증하여 부모·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적은 게 그 원인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9> 성 지식·성 태도 영역별 총 평균점수 (n=1,904명)

	평균±표준편차
신체발달 영역	7.23±3.04
성건강·성심리 영역	6.16±3.17
인간관계 영역	9.32±2.67
성문화·성윤리 영역	6.72±2.01
총 점	34.25±8.18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부모가 성 교육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성 지식·성 태도 영역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 지식·성 태도 영역간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모든 영역에서 $p < .00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볼 때 신체발달영역과 성 건강·성 심리 영역 사이에 상관계수는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 건강·성 심리 영역과 인간관계영역에 상관계수가 .573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 윤리·성문화 영역과 신체발달 상관계수는 .265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간 생리현상 경험을 알아본 결과, 서울 YMCA(1986)연구에서는 여자의 21.9%는 월경을, 남자의 13.3%로 나타났으며, 김옥렬(1992)은 월경과 몽정을 경험한 학생이 19.7%, 김애경(1994)의 연구에서는 5, 6학년 남학생의 몽정경험이 3.6%, 여학생의 월경경험이 19.6%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5, 6학년 남학생의 몽정은 3.2%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월경을 하는 학생이 11.5%로 선행연구보다 오히려 낮았는데, 그 이유는 조사 시점이 학년말이 아니라 4학년이 5학년으로, 5학년은 6학년으로 진급하자마자 3월에 실시된 것이므로

<표 10> 성지식·성태도 영역간 상관관계 (n=1,904명)

성지식·성태도 영역	신체 발달	인간 관계	성건강·성심리	성문화·성윤리
신체발달	-			
인간관계	.527***	-		
성건강·성심리	.639***	.573***	-	
성문화·성윤리	.265***	.403***	.291***	-

*** $p < .001$

신체변화 등 신체성숙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시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6학년 학생의 경우 학기초와 학년말은 많은 신체 발달 등 몸에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학기말에 한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성 지식·성 태도도 학기초와 학기말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학년초와 학년말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항목별 총점에서, 신체 발달 영역 중 신체 발달 중 가장 높은 점수는 『사춘기에는 몸의 변화가 생긴다』, 『아기는 자궁에서 자람』, 『남자, 여자답게 변화하는 것은 성호르몬 때문임』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신체변화는 잘 알고 있었으나, 임신·출산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 성 지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점수가 낮았다. 이는 김애경(1994), 이수진(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즉 사회가 변화하고 많이 발전하였지만, 임신과정이나 출산과정에 대해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일선학교의 보건교사들도 성교와 관련하여 임신이 되고, 출산한다는 설명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춘기 학생은 성교(sexual intercourse), 임신, 그리고 출산 등에 대해 호기심은 극대 되고 있으나, 학교 보건교사나 가정에서 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가 극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라 기피하거나 교육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은 제대로 성 지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런 결과로 성 지식·성 태도 점수가 낮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애경(199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성에 관한 궁금증 해소방법을 물어본

결과, 부모님 40.4%, 친구 12.4%, 선생님 12.0%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 고민시 선생님께 상담하는 것이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성교육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영향이 있으며, 활성화된 성교육의 효과로 사료된다.

또한 성 지식 점수가 낮은 항목 즉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우나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 『월경 중 샤워는 해도 됨』, 『몽정후 생식기를 씻어야 함』등이 평균 0.5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조사 시점이 4학년에서 5학년으로, 5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 진급한 3월이기 때문에 월경을 경험한 어린이가 불과 107명(11.5%), 남학생은 몽정을 경험한 어린이가 불과 30명(3.2%)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시기였고, 성 건강·성 심리 부분에 성교육이 시기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수진(2001)의 성 지식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4, 5, 6학생들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전체아동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자위행위가 건전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우나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이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와 이수진(2001)연구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자위행위는 성 욕구를 해소하는 청소년기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과, 자위행위시 유의해야 할 에티켓, 행위 후의 깨끗한 처리와 샤워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였고, 월경 중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샤워는 해도 된다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도치문항인 『에이즈 환자와 악수하면 에이즈에 걸림』은 평균점수 0.5 점 보다 상당히 높아서 대다수 어린이들이 악수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영(1995)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학생들이 성폭력과 에이즈에 대한 성교육 수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라고 하였다.

김애경(1994)은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성 지식을 얻는 출처를 알아본 결과, 학교교육이 39.2%, 부모님 26.0%, 친구 14.4%, 영화나 텔레비전 3.9%, 잡지 4.0%로 대답하여 다수가 학교 성교육에 의하여 성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 지식을 얻는 통로가 학교성교육이 가장 많은 만큼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에이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 나라에도 에이즈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올바른 에이즈 교육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 태도와 관련이 있는 인간관계 영역, 성문화·성윤리 영역 결과를 보면,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움』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 수진(2001)의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광고의 성 표현은 사실임』이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성 광고는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것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성 호기심은 친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이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성 호기심은 친구보다는 부모나

학교 성교육담당교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해 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김애경(1994)의 초등학교 5-6학년의 성 지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 모두 남성성을 여성 성보다 더 우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있었으나, 상대성에 대해서는 인식정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상대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가정과 학교의 성교육이 여아중심으로 이루어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교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음』,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됨』,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옳음』이 평균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나 아직도 학생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은영(1995)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학생들의 성 역할 개념에 대해 성교육 전·후를 비교분석 한 결과 성적 편견 61.0%, 사회활동에 대한 성별선입견이 65.0%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여전히 성차별에 대한 교육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학교나 가정에서 남녀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준다. 특히 임신과 출산, 월경, 몽정, 에이즈, 성폭력, 양성평등, 성 광고의 허구성 등에 대한 성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1904명을 분석한 것이며, 연구도구로는 2001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성교육 교사용 학습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 고학년 책에 나와 있는 학습목표를 기초로 간호학교수 2인과 보건교사 3인이 함께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조사방법은 2002년 3월 10일부터 3월30일까지 해당학교 보건교사가 직접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10.0)을 이용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t -test, F -test(ANOVA),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항목별 성 지식·성 태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발달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사춘기에는 몸의 변화가 생긴다』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점수는 『정자의 성염색체는 XY 입』으로 나타났다.

성 건강·성 심리 영역에서는 『고민시 부모나 선생님급 상담하는 것이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우나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간관계영역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특히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선을 다해야 함』, 『가족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함』

등이 높게 나왔으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즉, 『자기표현이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어른들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왔다. 또한 도치문항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있음』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 아직도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문화·성 윤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 지식 점수로는 『혼자일 때 낯선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음』, 『누가 몸을 만지려 할 때 “싫어요” 말함』,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임』순으로 나왔으며, 『성의 잘못된 생각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잃게 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성평등문화인 점수를 순위별로 보면, 『전교 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음』,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됨』,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좋음』순으로 나타나 아직도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게 성 차별이 크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은 남학생이 평균 32.19점, 여학생이 36.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9.644, p<.05$), 5학년이 평균 33.78점, 6학년이 34.73점으로 6학년이 더 성 지식·성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194, p<.05$). 부모로부터 성교육 받은 경험유무간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은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11.063, p<.05$).

여학생 월경경험 유무간에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의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몽정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간에 성 지식·성 태도 총점은 동정을 경험한 학생이 높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들의 성 지식·성 태도 영역별 점수를 최대 13점에서 최저 0점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인간관계 영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신체발달영역, 성문화·성 윤리 영역, 마지막이 성 건강·성 심리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성 건강·성 심리 영역이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위행위·월경·몽정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 성 지식·성 태도 점수가 매우 낮게 나온 결과이다.

넷째, 대상자의 성 지식·성 태도 영역간 상관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볼 때 신체발달영역과 성 건강 영역 사이에 .63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성 건강 영역과 인간관계 영역이 .573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 윤리 영역과 신체발달 영역사이에는 .265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2001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 교사용 성교육 지침서가 효과적인지 알기 위한 교육 전, 교육 후 비교연구가 필요하고,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 지식·성 태도 점수가 낮은 항목인

임신과 출산, 자위행위, 월경, 몽정, 에이즈, 성 폭력, 양성평등에 대한 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필요하다.

셋째, 시대별로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의 성 지식의 변화를 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접수일자: 1월 10일, 게재확정일자: 5월 31일>

참고문헌

- 강경희.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호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강윤선. 국민학생의 건전한 성지식 및 성태도 형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강희경.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변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계수연.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의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계수연, 문인옥.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999;16(2):137-146.
- 곽양신.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교육인적자원부. 성교육교사용 지침서 함께 풀어 가는 성이야기 초등 고학년, 2001.
- 구자욱. 중등학교 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근상.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과 성교육 요구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덕길. 초경전 후의 체격 및 체력발달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선희. 초등학교 성교육실태와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성애. 고등학교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수련.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스미. 성교육프로그램 전·후 지식 및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애경. 국민학교 5-6학년 남아아동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지향. 남자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희자, 남선영, 정연강, 박경숙.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과 성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5;8(2): 233-244.
- 문영희. 국민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사은영. 성교육 학습방법에 따른 성 지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서울YMCA. 성교육을 위한 후기학동의 성 실태조사보고서. 1986.
- 서원호. 초등학교 성교육실태와 이에 대한 교사의 의식조사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송정부.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2.
- 안창선, 김현옥. 학교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양순옥·정금희. 제대로 알면 자녀의 성교육 문제 없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1998.
- 양순옥·정금희·백성숙. 강원도 중학생의 성태도와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8;9(2): 482-501.
- 윤명선. 초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선미.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성 지식 및 성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수진. 초등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순자.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옥철.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생, 학부모 성교육요구도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0;3(1): 73-85.
- 이은주. 양호교사와 관련교사의 성교육 이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화연. 우리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도서출판 돌베개, 1991.
- 장말희. 성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Hurlock, E.B. Adolescent Development, 2nd edition, New York: McGrew-Hill Book co., Inc. 1955.
- Haffner, Debra W., *Sexuality Educaion Social Policy*, 1998;28(3):76-78.
- Howrad, M. & McCabe., J.B *Helpig teenagers postpone sexual involvement. Family Planning Perperctives*, 1990;22(January/February):21-26.
- Particia Donovan., *School-Based sexuality education: The issues and challeng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998, July/August;30(4).
- SIECUS.,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 Sex Information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 1991.

Hadly, Alison., *How to cut teenage pregnancies*, *New Statesman*, London, England., 1966;(27):24-25.

<ABSTRACT>

A Study of Elementary School Pupil's Knowledge and Attitude on Sex

Kyu Young Lee* · Kyoung Sook Kang**

* *Munchon elementary school*

** *Dept. of Education, Inha Univ*

This study has been done in order to examine elementary school pupil's knowledge and attitudes on sex.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04 elementary school pupils in the 5th and 6th grade of three elementary schools in Kyonggi-do, Korea.

A guide book for the teachers on sexual education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has been used as the tool for the study. Data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using SPSS Win(10.0)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human relationship area showed the highest, next were physical development, sexual culture and sexual ethics, and the last were sex health and sexual psychology.

The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each area of knowledge and attitude on sex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in the level of $p < .001$ in all areas. When examined individually the highest correlation was demonstrated between physical development and sexual health and human relationship by $r = .573$, while it demonstrated only $r = .265$ the lowest between sexual ethics and physical development.

Key words: Sex, Sex knowledge, sex attitudes, sex education, elementary school pupils, Sexuality